

01 교회소식

초대교회를 닦은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02 생명의 말씀

사랑의 깊이

하나님 사랑의 차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진실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다.

03 기획특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열렸던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말 씀을 통해 깊은 사랑의 차원을 일곱 단계로 살펴본다.

04 간증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최고입니다!”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양안 시력이 확실하게 좋아진 김광석 집사와 신종플루를 치료받은 에스토니아 빅토르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845호 2018년 7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권능과 기도, 사랑과 구제로 행복을 전해요!”

《《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며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되었다. 이후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폐하고 있어 새벽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 주일 저녁예배를 없애고 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까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

도들로 성전 안이 빼곡하다. 새벽예배는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화요찬양예배, 학생과 아동 각각의 토요일찬양예배 외에도 장년들은 화요지역기도회와 금요구역예배, 남 장년들은 목요구역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

최근에는 성도들의 기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매일 밤 9시부터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물론, ‘낮 기도회’와 별미기도회도 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불을 받으며 연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올리고 있다.

《《 기사와 표적, 권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돕고 구제하는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는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고 죄와 불법이 성한 오늘날에는 더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1982년 개척 이래 지금까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1만 1천여 지·협력교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가뭄 중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소멸되며, 기온이 조절되는가 하면,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 등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대교회처럼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난다.

《《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주님의 피 값으로 산 형제, 자매로 귀히 여기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했다. 우리 교회도 개척 때부터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닦아 ‘구제’를 항상 기도제목 중 하나로 정해 실천해 오고 있다.

구제위원회를 두고 교회 내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성도 1천여 가정에 기본 생활보조비 및 쌀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터민들의 모임인 주사랑선교회 회원들에게도 매월 지원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수여 외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학원비, 교통비, 긴급자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관공서와 복지관에 쌀을 지원하고 김장을 나누며, 이·미용 봉사, WCDN 무료 검진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성도들은 곳곳에서 구제하며 재능 기부를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포털사이트 인빅토리와 CNL 뉴스에 ‘가난한 1,000여 가정을 매달 구제하는 한국의 만민교회’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 일터,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니 가족 복음화를 이룰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전도되어 부흥을 이루고 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케냐, 페루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 수십, 수백만 명이 모인 연합대성회와 각종 집회를 통

해 따르는 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신약서적과 선교지 ‘만민뉴스’를 통한 문서 선교, 170여 개국에 송출되는 GCN방송(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전함으로 국내외 1만 1천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사랑의 깊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10)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교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경작을 시작하신 목적은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진실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곱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은 율법의 완성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이중에 ‘하리’는 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개이지요. 이것들을 축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답하시지요.

이 말씀처럼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되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설령 613가지 율법 조항을 모른다 해도 결국은 모두 실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율법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했습니다. 계명, 곧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진정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랑의 깊이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일곱 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랑의 깊이를 점검하는 일곱 가지 기준 첫째, 용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기본적으로 용서할 자를 능히 용서할 뿐 아니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는 차원입니다. 남유다 느밧세 왕은 심히 악을 행해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셨지만 귀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이방나라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제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대하 33:1~13).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실 때라야 비로소 낮아져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왕상 21:17~29).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지를 여쭙자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십니다. 7은 완전수로서 일흔 번에 일곱 번이란 무한대의 용서, 완전한 용서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인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눅 23:34)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중심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시되 한계가 없이 용서하시고, 한번 용서하셨으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며 기록 자체를 없애 버리십니다(사 43:25 ; 시 103:12~14).

둘째, 살리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바탕과 환경을 만들어 주며,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투기하여 죽이고, 자신에게 임할 형벌이 두려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가 아닌 두려워서 죄를 시인하는 정도임에도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살 수 있는 길까지 보장해 주심으로 평생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 구원받아 낙원에 이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영혼들을 부탁하시며 다시 수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지요. 이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힘과 마음을 다해 사역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처럼 지난 허물을 용서할 뿐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인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사랑의 깊은 차원까지 이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사랑의 깊이' 중에서

셋째, 참음의 단계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음은 참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회개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 주는 것이지요. 빨리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밀어붙이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영혼은 당장 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차근차근 진리로 채우며 쌓아가야 하지요. 이때 원수 마귀 사단이 다시 넘어뜨리려고 방해할 수도 있으니 싸워야 하고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 신속히 변화되지 못하는 영혼도 선과 사랑으로 참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오면서 많은 오해와 비방,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개척 때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참아왔습니다(마 5:11~12). 때로는 성도 중에 사단에 미혹되어 다른 성도들을 시험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제 편에서 먼저 포기하지 않았지요. 제가 모든 것을 참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참을 수 있었습니다(딤후 2:10).

넷째, 믿어 주는 단계입니다.

제가 어떠한 영혼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참아 줄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좋은 양 떼라 믿었고,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 가운데 범죄하고 속이며 불순종한다 해도 포기한 적이 없지요. 밍거나 싫은 마음 자체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여 낙심하기라도 하면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 주었지요.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믿어 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근간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상대를 믿어 줄 수 있지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믿어 주었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바라봐 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바라봄'이란 상대의 단점이 아흔아홉 개요, 장점이 한 개라면 아흔아홉 개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사랑하기에 한 개의 장점, 그 한 개의 선(善)이 넓혀질 것을 바라봐 주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가 변함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봐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히 11:1). 배우자나 부모를 전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면 결국 응답받을 수 있지요.

저는 교회 개척 후 마음발, 성격, 배움, 교양 등 모든 것이 다른 영혼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갈 영혼이라 믿고 그들의 장점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장점을 잘 살리면 자연스럽게 단점은 점차 버려지리라 믿었지요. 설령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영혼이라도 연단을 잘 통과하여 온전케 될 날을 기대하며, 그가 예전에 잘했던 일들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서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울을 권능의 사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강한 성격은 핍박에 굴하지 않는 의지로, 복음을 대적했던 많은 지식은 복음을 정립할 수 있는 도구로,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하는 열정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여러분도 어떤 영혼이든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몸과 마음에 연단받는 사람이라면 변화될 모습을 함께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섯째,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 준 상대가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해도 조금해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사랑의 차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큰 기대와 사랑의 마음으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어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급속히 죄로 물들어 갔습니다. 불과 1,600년이 흘렀을 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을 단행하셔야 했지만 그러면서도 인간 경작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지요. 지금 또한 여전히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

니다(벧후 3:8~9).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세월 동안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셨으며 참고, 믿으며, 바라봐 주셨습니다. 열매가 기대보다 적다 해도 조금해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지요.

우리가 믿고 바라봐 준 영혼들이 변화의 열매로 나오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음도 심어 주고 말씀도 전해 주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지요(고전 3:6). 기다리는 세월 동안 상대로부터 욕을 먹거나 해를 입어도 한결같은 소망을 품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픔을 느끼셨지만 품성히 맺힐 열매를 바라보시며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곱째, 눈물을 흘리는 단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서도 인생들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으시고 다시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의지를 굳히셨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인생들의 악을 대면하시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위해서 뿐 아니라 배신할 자를 위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한 방울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향으로 올라갑니다(시 56:8). 저도 영혼들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악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사랑의 눈물이 반드시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려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아픔과 처절한 슬픔을 겪는다 해도 사랑의 눈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감으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장차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나이에 시력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김광석 집사 (49세, 2대대 12교구)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5월 복지 차원으로 직원들과 배우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2017년 5월 검진 때 저는 좌우 시력이 0.9, 0.5로 측정되었으며, ‘고도근시’로 노안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책을 즐겨보는 데다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아 눈의 피로가 쌓이다 보니 자주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한참 집중을 해야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 후 8월에는 한의원에서 노안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주위에 노안 방지 차원의 침도 맞아 보았지만 별 차도가 없었고 시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엔 지장이 많아 2018년 2월에 안경까지 맞춰야 했지요. 난생 처음 쓰는 안경이라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후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각종 예배나 다니엘철야 기도회 때마다 눈 위에 손을 얹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또한 4월 초부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더딘 제 모습을 돌아보며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일 년 만에 건강검진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양안 시력이 모두 1.5로 측정되었을 뿐 아니



라 고도근시 없이 정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몇 시간씩 마음껏 읽어도 눈이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를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의 작은 행함과 마음의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 권능의 신증인 들입니다. 아들 재민 형제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마르고 또래들보다 키가 작아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18 kg이었고, 초등학

교 4학년 때에도 선교원에 다니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작았지요. 해마다 아들의 키를 놓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은 키가 171 cm가 되었습니다. 훌쩍 자란 아들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너무 놀랐다고 저희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많이 해 주십니다.

아내 고봉숙 집사는 수년 전에 이석증(깃속에 있는 미세한 석회 물질인 이석이 제 위치를 벗어나서 생기는 어지럼증)으로 잘 먹지도 못하고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고 치료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제단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항목	2017년 5월	2018년 5월
시력	0.9 (좌), 0.5 (우)	1.5 (좌), 1.5 (우)
안압	17.0	16.3
안저혈관	정상	정상
안축거	23.7	23.1
안축경	23.1	22.7

▲ 2017년 5월, 0.9, 0.5였던 좌우 시력이 2018년 5월에는 모두 1.5로 측정되었다.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로 신종플루를 치료받았습니다”



빅토르 트시가넨코 성도 (75세, 에스토니아 진리의 근원교회)

유럽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하더니 작년부터는 에스토니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노인에게 더욱 위험한 질병인지를 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맞은 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2일(월) 오후 6시경, 갑자기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더니 심한 두통과 함께 오한이 찾아옵니다. 이에 아내가 급히 앰블렌스를 불렀고, 저는 신종플루 환자로 의심되어 격리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그리고리 콜레초프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하여 제 상황을 알리며 기도를 부탁하였지요.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고열과 오한은 계속되었고, 저는 검사 결과가 치명적이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13일(화) 새벽 1시경, 안타깝게도 진단 결과는 신종플루였습니다. 그 무렵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세 번 연속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내는 의사에게 허락을 받아 제게 면회를 와서 제 귀에 휴대폰을 대고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경,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온이 40도에서 36.5도로 떨어져 정상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75세의 고령임에도 발병한 지 12시간 만에 정상체온으로 돌아오는 등 빠르게 회복되니 의사는 너무나 놀라워했고, 저는 곧바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리 콜레초프 담임 목사님이 만민과 하나 되어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GCN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공부는 물론, 당회장님의 저서 『천국』(상, 하),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만민뉴스’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 이재록 목사 초청 에스토니아 연합성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여 목도한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기도로 죽음의 위기에서 되살아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춘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